

2025년 9월 KSC 현지거점 정보 보고서

2025년 9월 현지거점 정보

순서	거점명	비 고
1	<u>도쿄</u>	P.3
2	<u>하노이</u>	P.6
3	<u>시애틀</u>	P.12
4	<u>파리</u>	P.15
5	<u>싱가포르</u>	P.20

KSC 도쿄

1 경제 · 산업 동향(바이오)

① 현지 이벤트

□ 아시아 최대 규모 바이오 산업박람회 BIO JAPAN 2025

- (일시 및 장소) 10.8~10(금), 요코하마 퍼시픽코
- (주최) 바이오재팬조직위원회, 일본바이오산업협회 등
- (내용) 전시회, 세미나, 파트너쉽 세션을 구성된 아시아 최고의 바이오 산업파트너십 행사
- (참가) 제약사, 대학 및 기관, 의료관련 스타트업, 기업 등

□ 제8회 메디컬재팬 도쿄

- (일시 및 장소) 10.1(수)~3(금), 치바 마쿠하리 멧세
- (주최) 일본 병원협회, 일본 개호협회, 약국 dx 추진 컨소시엄
- (내용) 병원설비, 의료기기, 클리닉제품 등 의료 및 개호분야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
- (참가) 제약사, 대학 및 기관, 의료관련 스타트업, 기업 등

② 현지 정책동향

□ 후생노동성 지방 개업의사 세부담 경감관련 요구안 제출 [8.26]

- (주요내용) 후생노동성은 2026년도 세제 개정을 둘러싸고, 인구
에 비해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서 개업하는 의

사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

- 진료소의 신설이나 사업 승계 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 (등록면허세, 부동산취득세, 일정 기간의 고정자산세, 도시계획세 등)을 경감해 지역 의료 유지에 연결한다는 취지
- 대상은 도도부현이 설정하는 중점 의사 편재 대책 지원 구역(정주 인구가 예상되나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)에서 개업하거나 승계

□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, 헬스테크 요구되는 기술 실증 [닛케이 9.6]

- (주요내용) 아이치현 오부시는 헬스테크 창업 주요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현장의 노동생산성 제고 및 주민의 건강 제고를 위한 제품 개발 및 판매 촉진을 지원
- 실현하고 싶은 기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회사의 제품 개발 힌트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하면, 기술을 가진 기업은 오부시 내 의료시설을 실증 장소로 활용하며, 상용화 지원
- 매년 7건의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, 2건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탄생하고 있음

③ 현지 뉴스

□ Toppan, 의사의 아바타를 통한 환자에 치료방법, 입원절차 설명 앱 개발 [닛케이 96]

- (주요내용) 일본 기업 TOPPAN은 의료 행위를 설명하는 동영상 생성 앱으로 의료 현장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지원, 생성 AI(인공지능)를 사용하여 의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한 아바타가 환자에게 증상과 입원 절차를 설명
- 의료 기술의 설명 동영상을 생성하는 웹 앱 "DICTOR"는 홋카이도 대학 병원의 의료 건강 과학 연구 개발 기구(삿포로시)와 공동 개발했으며, 쇼난다이병원을 비롯한 35개 의료기관에서 도입

□ 일본과 아세안 경제장관회담을 통해 바이오 연료 도입 및 AI 인재육성 협력 확인 [닛케이 924]

- (주요내용) 일본과 ASEAN은 말레이시아 경제장관회담 개최를 통해, 차세대 자동차 연료로 활용될 바이오 연료 도입 및 인공지능 분야 인재육성 협력 상호 협력에 합의
- 전기차 도입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 관련 농산물로 만든 바이오 연료는 새로운 인프라네트워크 구축이 필요없다는 점에 공감했으며, 일본과 아세안이 만든 경제산업협력위원회는 공급망 강화가 필요한 우선산업 파악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예정

KSC 하노이

1 | 경제 · 산업 동향

□ 베트남, 8월 수출 강세 유지 (2025-09-06)

- 베트남 2025년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.5% 증가한 433억 9천만 달러 기록. 같은 기간 수입은 17.7% 증가해 396억 7천만 달러. 8월 당월 무역 수지는 37억 2천만 달러 흑자.
- 1월 ~ 8월 누적 수출은 총 3,059억 6천만 달러, 수입은 2,919억 7천만 달러로 누적 무역 수지는 139억 9천만 달러 흑자 기록
- 8월 산업 생산 8.9% 증가, 소매 판매 10.6% 증가. 소비자 물가 3.24% 상승. 베트남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8.0%에서 8.3% ~ 8.5%로 상향 조정했으며 물가 상승률 목표는 4.5%~5.0%임

□ 팜민찐 총리, GDP 8.3%~8.5% 성장 달성 강조 (2025-09-06)

-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거시 경제 안정 유지, 물가 통제, 주요 경제 균형 확보, GDP 8.3% ~ 8.5% 성장 달성, 지속 가능하며 고부가 가치 성장,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삶 향상 강조
- 유연하고 신속한 금융, 통화 정책 및 환율 관리 특히 금과 달러 가격 관리 강화. 공공투자 지출 집행 100% 달성, 예산 수입 25% 증대 목표
- 등록 FDI 2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.3% 증가, 집행된 FDI 154억 달러 8.8% 증가

□ 베트남 북부 전력 부족 심각 (2025-09-03)

- 2025년 베트남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10.5% ~ 13.0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,200MW ~ 2,500MW 추가 공급 필요 2026년 ~ 2030년 까지 연간 전력 수요 증가율은 12% ~ 15% 달할 것으로 예측
- 베트남 북부 지역 필요 전력은 10,800MW이지만 실제 확보된 전력은 3,160MW. 박장, 박닌 등 삼성전자, 폭스콘, 캐논 등 글로벌 기업이 입주한 산업 단지에 9월 2일 갑작스러운 정전 발생
- 베트남 정부는 가로등 끄기, 일부 산업 단지 야간 작업 제한 실시. 중국과 라오스에서 전력 수입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력 부족. 전력 공급망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 등으로 근본적 대응 시급.

□ 베트남, 2026년부터 휘발유에 에탄올 혼합 의무 (2025-08-28)

-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6년부터 휘발유에 10% 에탄올을 혼합한 E10 연료 사용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로드맵 제시. 단계적으로 2031년 이후에는 15% 에탄올 또는 그 이상 혼합 비율 확대
- 2026년 시행으로 CO2 배출 3~5% 감축 예상되며 연간 64만 ~ 80만톤의 CO2 배출 저감 효과 거둘 것으로 보임. 특히 대기 오염이 심각한 하노이와 호치민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 예측
- 현재 베트남 에탄올 생산 가능량은 E10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필요 수요의 40% 수준. 베트남 정부는 미국산 에탄올과 옥수수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 흑자 폭을 줄이고자 함. 이와 함께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산 에탄올 수입 관세를 기존 10%에서 5%로 인하 조치.

□ (2025.09.08.) 세계은행, 베트남 2025년 GDP 성장률 6.6% 전망

- 세계은행(WB)이 9월 8일 발표한 베트남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, 2025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6.6%로 예상되며 이는 상반기 7.5%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은 결과임.

- 2025년 베트남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.4%, 14.9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각각 8.7%, 10%로 둔화될 전망이다.
- 수출 중심 경제 구조로 인해, 베트남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주요 교역국 수요 감소에 취약함.
- 중기적으로 베트남 GDP 성장률은 2026년 6.1%까지 낮아졌다가 2027년 6.5%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.
- 세계은행은 성장 지원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공공 투자 확대, 금융 부문 위험 완화, 구조 개혁 가속화에 집중할 것을 권고함. 특히 정보통신기술, 전력, 교통 등 핵심 서비스 분야의 규제 체계 강화, 녹색 전환 추진, 인적 자본 강화, 사업 환경 개선이 필요함.
- 베트남은 수출 제품 및 시장 측면에서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, 역내 통합과 연결성을 강화해야 함.
- FDI 기업의 현지 공급업체 활용 확대와 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 공급업체의 생산성 제고로 국내 민간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베트남 WB 경제학자가 강조했다.

출처: VnEconomy

URL: <https://en.vneconomy.vn/wb-projects-vietnams-gdp-growth-at-66-in-2025.htm>

□ [2025.09.08.] 베트남, 8개월간 FDI 27.3% 급증

-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, 2025년 1~8월 동안 베트남은 약 26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(FDI)를 유치하여 전년 동기 대비 27.3% 증가했습니다.
- 외국인 투자자는 2,534건의 신규 프로젝트에 총 110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자본금은 전년 동기 대비 8.1% 감소했으나 프로젝트 수는 12.6% 증가한 것입니다. 996건의 기존 프로젝트가 총 106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증액되며 전년 동기 대비 85.9% 급증했습니다. 자본금 출자 및 주식 매입도 44억 6천만 달러로 58.8% 늘어났습니다.
- 특히 FDI 지출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8.8%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
- 신규 허가 프로젝트가 있는 78개국 및 지역 중 싱가포르가 30억 6천만 달러로 전체의 27.8%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고, 이어 중국(26억 5천만 달러), 스웨덴(10억 달러), 일본(8억 7천만 달러) 순이었습니다.

출처: VnEconomy

URL: <https://en.vneconomy.vn/vietnams-fdi-inflows-surge-273-in-8m.htm>

□ [2025.09.11.] 호찌민시, 10월 1일까지 행정 절차 100% 디지털화 추진

- 호찌민시는 10월 1일부터 모든 행정 절차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100% 접수하여 종이 서류 없는 온라인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. 시 인민위원회는 8월 23일자 총리령 제144호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하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담은 지침을 최근 발표했습니다.
-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처기관 지방 행정 단위 책임자에게 관할 구역 내 정책 절차 개선 방안을 신속히 검토·제안하도록 지시했으며 올해 안에 행정 준수와 관련된 사업 여건, 시간 및 비용을 최소 30% 감축하라는 정부 결의 66호의 목표 달성을 강조했습니다.
- 인민위원회 사무국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 제공되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 목록을 확장·공표하고 지방 행정 경계를 초월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. 이 작업은 9월 12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.

출처: VietnamNet

URL: <https://vietnamnet.vn/en/hcm-city-to-digitize-100-of-administrative-procedures-by-october-1-2441374.html>

□ [2025.09.11.] 베트남, 암호화폐 시장 5년간 시범운영...부총리 승인

- 베트남이 향후 5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시범 운영함. Ho Duc Phoc 부총리는 9일 베트남 내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에 관한 결의안 5호(05/2025/NQ-CP)에 서명·공포했으며 결의안은 이날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규정 발표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해당 결의안에 따라 운영됨.
- 주요 활동은 ▲암호화폐 발행 및 제공 ▲거래 시장 조직 ▲서비스 제공 등이며 신중함과 통제, 안전성 및 투명성, 참여 기관 및 개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 원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. 시장 참여자(기관·개인)는 정보 공개 규정, 자금 세탁 방지, 정보·네트워크 보안, 데이터 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.
-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는 베트남 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만 가능하며,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·베트남 동을 제외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됨. 암호화폐 자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며, 재정부 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음.
- 발행자는 발행 예정일 최소 15일 전 자산·서비스 제공업체의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문서를 게시해야 함.
- 암호화폐 자산을 소유한 국내외 투자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예약과 거래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국내 투자자는 최소 6개월간 허가된 기관에서 거래 가능함.
- 서비스 제공업체는 ▲베트남 기업 ▲관련 사업 분야 등록 ▲최소 10조동 자본금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자본금의 65% 이상은 기관 출자, 이 중 35%는 상업은행·증권사·펀드·운용사·보험사·기술기업 등 최소 2곳 이상에서 출자해야 한다.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%까지 허용됨.
- 주주 및 출자자는 법적 지위를 갖추고 허가 신청 시점 이전 2년 연속 이익을 기록하고, 검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. 각 기관 또는 개인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1개 기관에만 출자할 수 있음. 허가 신청 기업은 본사 및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CEO는 금융·증권·은행·보험·펀드·운용 분야 2년 이상, CTO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함. 관련 자격증을 갖춘 직원 20명 이상을 채용해야 함.
-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·거래·지급은 모두 베트남 동(VND)으로 진행됨.
- 싱가포르 가상자산 결제업체 트리플에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베트남 인구의 20%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음.

출처: 인사이드비나

URL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808>

□ [2025.09.12] 베트남 내년부터 전국민 무료 건강검진 실시..정치국 결의안

- 정치국은 9월 9일 결의안 72호(72-NQ/TW)를 발표했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·관리·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음. 정치국은 2030년까지 국민의 체력, 지능, 신장, 건강 수명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무료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임. 또한 전자 건강 장부를 구축해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95%까지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임.
- 2030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 기본 진료비가 면제될 예정임. 이에 따라 보편적 건강 보험 적용 범위 및 건강보험 종류 개발에 나설 계획임.
- 베트남은 2027년까지 보건소당 의사 수를 최소 4~5명으로 늘리기 위해 시설·장비·인력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 공중 보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.
- 담배·알코올 등 유해한 제품의 소비 억제 정책, 영양·체력·신장·수명·학교 내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, 질병 예방 영양 프로그램 등 마련될 예정임.
- 베트남은 이러한 중장기적 의료 개혁을 통해 2045년까지 생활 환경, 건강 지수,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범위에서 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음.

출처: 인사이드비나

URL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837>

KSC 시애틀

1 | 경제 · 산업 · 외교 동향

□ [2025.9.6.] 미 이민국,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475명 구금

- 이민 당국이 단일 시설에서 행한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사건이며,
 - 가장 큰 규모의 제조시설을 타겟으로 한 점, 단속의 주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이 충격
- 아울러 현지 언론은 이번단속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더불어, 인력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동시에 소개하는 등 비교적 중립적 관점을 견지
- 시애틀의 경우, 한인사회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며 향후 단속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
 - 아울러 사실상 ESTA로 출장으로 오는 많은 한국 기업인들은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

□ [2025.9.20.] H-1B 비자 12개월마다 10만달러 부과

- 트럼프 대통령, H-1B 신청시 건당 10만달러 부과 포고문 서명
 - 신청 및 12개월 단위로 연장시마다 10만달러를 부과(기존에는 신청시 추첨등록비 215달러,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수준)

- 러트닉 상무부장은 비자 제도가 남용되어 미국인의 과학기술 분야 고용에 방해가 되었다고 밝힘
- 이로 인해 특히 미국의 IT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
-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메타 등 대형 IT 기술기업들은 IT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 부족을 외국인력에 의지해 왔음

□ [2025.9.20.] 아마존, MS H-1B 비자 소지자들 미국에 머물 것 긴급지시

- 취업비자 10만달러 조치에 대비상, 국내체류 및 해외이동 자제 지시
- 시애틀의 양대 기업인 아마존과 MS가 동시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
- 아마존, MS은 외국인력고용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,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으며, 전 직원에게 해외이동을 자제하고, 21일까지 미국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

□ [2025.9.25.] 스타벅스, 시애틀 Reserve 매장 2곳 폐쇄

- 스타벅스 CEO인 브라이언 니콜은 매장폐쇄, 구조조정 발표
- 미국과 캐나다 매장의 1% 폐쇄, 직원 900명 해고를 발표
- 특히 시애틀의 캐피톨 힐과 소도 본사의 Reserve 매장 2곳 폐쇄도 전격적으로 발표
- 두 매장은 스타벅스 뿐 아니라 시애틀의 상징적인 매장이며, 특히 로스터리 매장은 전세계 6곳에만 있는 매장중 하나였음

- 브라이언 니콜 CEO는 작년 취임한 이래 스타벅스 매출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으나,
- 이번 조치는 근본적으로 너무 높아진 커피가격에 대한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

□ [2025.9.26.] 'Jimmy Kimmel Live!' 방송 재개,

- 심야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이 복귀하였고, 복귀당일 시청자수 626만명을 기록하며 시청율 신기록 달성
- 지미 키멜은 찰리 커크 사망 직후, 그의 죽음을 둘러싼 공화당의 반응을 비판하는 등의 방송으로 방송이 중단된 바 있음
- 그 이후 표현의 자유 훼손에 대한 강한 반발과 디즈니+ 및 훌루 스트리밍 구독 취소 등 각종의 의견이 맞부딪혔으며,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음

1 경제 · 산업 동향

□ [2025.09.16] 프랑스 국채 정치 불안으로 이탈리아 국채만큼 위험 평가

○ (주요내용)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 적자 우려로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 국채를 추월하며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

-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채를 웃도는 상황 발생
- 프랑수아 바이루(François Bayrou)의 신임 투표 부결과 사임 발표 직후 시장 불안 심화됨
- 스페인·포르투갈은 재정 건전성 강화로 프랑스보다 낮은 금리 확보
-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140%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전망 개선으로 신뢰 회복 중
- 프랑스는 국제 신용평가사 Fitch에 의해 신용등급이 현재의 AA-에서 A+로 강등될 위험에 직면.
- 독일 대비 금리 격차는 0.75%포인트에서 0.80%포인트 사이로 유지되지만, 이는 프랑스만 개선이 없는 결과임.
-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 매력 상실과 조달 비용 급등 위험이 존재하며, 새 총리 인선과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꼽힘.

출처:

<https://www.lesechos.fr/finance-marches/marches-financiers/chute-du-gouvernement-la-dette-francaise-payee-desormais-une-prime-de-risque-superieure-a-la-dette-italienne-2185136>

2 중소기업·스타트업 지원 동향

□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 내 불확실성과 대응 전략

1. 스타트업 관련 현지 대내외환경

-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,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음
- 2025년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유치액은 전년 대비 약 35% 감소하였으며 특히 시드, 시리즈A 단계(0~1천만 유로) 투자가 크게 줄어듦(출처: EY)
- 프랑스의 정책 불확실성(법인세, 스타트업 지원 세제 변화 가능성)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2025년 정부 예산안 확정 전 M&A 및 자금조달을 서두르는 전략을 취함
-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B2B 고객들이 신기술, 친환경 솔루션 도입을 보류하는 상황도 발생함. 또한 '디지털 주권'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 기술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이와 동시에 전문 경영진(CEO, CFO 등) 영입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, 투자자들은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함

2. 스타트업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

- 투자가 감소하고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초기 단계 스타트업 생존율은 낮아지고 성장 속도가 느려짐
- AI, 딥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 심화 및 R&D 투자 축소로 인해 기술 개발 속도가 둔화됨
- 경영 전문인력 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타트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함

3. 스타트업 업종별 영향

- AI·딥테크 분야의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 의존도가 증가하며 프랑스 기업들의 핵심 기술 접근성이 제한되었으며, 기술 개발 속도나 사업화 속도가 모두 지연되고 있음
- 그린테크 분야 스타트업은 미국 환경 정책 불확실성으로 시장 진출이 지연되고, 유럽 내 탄소경제 및 순환경제 중심 확장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남
- 서비스 및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, 이전과 같이 빠른 성장(유니콘) 보다는 조직 효율화와 위험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함

4. 대응 방안 및 제언

- 프랑스 정부 예산안 및 법제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, 현지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- '디지털 주권' 및 기술 도입을 우선시하는 프랑스 스타트업과 한국 기업 간의 공동 연구개발(R&D), 기술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음
- 프랑스 생태계 내 한국 스타트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핵심 인재 확보 및 운영 역량 보완이 중요함

출처: Les Echos 기사 2025.08.25

(<https://www.lesechos.fr/start-up/ecosysteme/incertitude-politique-financements-ia-rentabilite-les-defis-de-la-rentree-pour-la-french-tech-2182547>)

□ [20250916] Mistral AI, 117억 유로 기업가치로 프렌치테크 첫 데카콘 등극

- **(주요내용)** Mistral AI가 11,7억 유로의 기업가치로 프렌치테크 최초 '데카콘'에 올라서며 Doctolib, Contentsquare, Qonto 등을 제치고 프랑스 최고 가치 스타트업으로 승극함
- Mistral AI가 17억 유로(약 1.7조 원)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며 기업가치 117억 유로로 프렌치테크 최상위 스타트업이 됨
- 이번 투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사 ASML이 단독으로 13억 유로를 투자한 점이 주목됨
- 설립 2년 반 만에 '데카콘'(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) 지위에 오른 것은 프렌치테크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됨
- 하지만 여전히 OpenAI, Anthropic 등 미국 AI 기업에 비하면 작은 규모임
- Qonto는 2022년 44억 유로 가치에 오른 핀테크 기업으로 2023년 순이익 흑자(7100만 유로)를 기록
- Qonto는 독일 Penta, 프랑스 Regate를 인수하며 성장했고, 현재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 중임

출처:

<https://www.lesechos.fr/tech-medias/intelligence-artificielle/mistral-devient-la-premiere-decacorne-francaise-avec-une-valorisation-de-14-milliards-de-dollars-2185081>

3 진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사례

(2025.09.16.) KSC 파리 입주기업 '다이브인' 지원 사례

- **(현황)** 다이브인(DiveIn)은 호텔과 협업해 객실을 감각적인 콘텐츠로 큐레이션하고, 여행자에게 특별한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, 프랑스 진출을 목표로 현지 공간 협업 파트너십 확대 및 장소 제공 관련 전략을 추진 중
- **(애로요청 사항)**
 - 프랑스 내 거점 마련 및 현지 파트너십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전략 부재
- **(애로해결 내용)**
 - 프랑스 진출 전략으로 장소 협업(Local Partnership) 접근 제시
 - 프랑스 주요 도시의 코워킹스페이스(Wojo, Deskeo, Greenspace Paris 등)와의 협업 가능성 탐색 제안
 - 각 지자체 및 arrondissement 단위의 청소년·여성·노인 센터와 연계하여 공간 제공 관련 협업 추진 권고
 - 특히 몽마르트 지역의 부티크 호텔 밀집 구역을 활용, 문화적·상업적 연계가 가능한 협업 공간을 모색하도록 안내
 - 이를 통해 다이브인은 프랑스 내 다양한 공간 협력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마련, 향후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초기 시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KSC 싱가포르

1 대외 환경 변화 및 주요 국가들의 대응 현황

- **(대외환경) 싱가포르 제조업 생산량, 7월 7.1% 증가로 예상치 상회**
 - 싱가포르의 7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.1% 증가하며 6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, 제조업 전반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.
 - 변동성이 큰 생명공학(의료기기) 부문을 제외할 경우 제조업 생산은 9.4% 증가하여, 핵심 산업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.
 - 특히 수송 공학 클러스터가 전년 대비 15.8% 성장하며 제조업 확장을 견인, 이 중 항공우주 부문은 22.7%, 해양·해상공학 부문은 11.7% 증가
- **관련한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**
 - 싱가포르 경제개발청(EDB)은 전망 조사에서 다수 기업이 3분기 생산 활동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으며, 일부 전자·정밀공학 분야 기업은 생산 증가 가능성 기대를 발표
 - 정부는 전자 제품(컴퓨터, 집적회로 등) 수출 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제조업 성장세와 글로벌 수요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
 - 무역마찰과 관세 불확실성이 제조업 수출 전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, 제조업 혁신 및 구조 전환 강화 등 전략적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

□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

- 관련 분야 스타트업들에게 부품 공급, 반도체 설계, ICT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
- 수송공학 클러스터 내 항공우주 생산이 22.7% 급증하고 해양·해상공학도 11.7% 증가함에 따라, eVTOL·드론·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 교통·항공 관련 스타트업들이 국내외 기업 및 정부 프로젝트와 협력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
- 정부가 무역 리스크 대응, 제조업 혁신, 수출 다변화를 강조함에 따라, 지속 가능 제조, 스마트 팩토리, AI·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 혁신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파트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

□ 분야별 영향

○ [전자·반도체]

- 7월 전자 산업 생산 13.1% 증가, 반도체 9.6% 증가, 서버 수요로 ICT·소비자 전자제품이 86.8% 급증
- 칩 설계, 반도체 장비, 클라우드·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수요 확대와 협력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

○ [항공우주·모빌리티]

- 항공기 정비·부품 공급 등 관련 스타트업에게 정부·대기업 협력 기회 확대

○ [정밀 공학·첨단 제조]

- 로봇 자동화, 스마트팩토리, AI 기반 제조 최적화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높음

○ [화학·소재]

- 친환경 소재, 고기능성 화학제품, 배터리 소재 등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ESG 흐름과 맞물려 수요 증가 기대

○ [일반 제조업]

- 일반 제조업은 9.7% 감소로 유일하게 부진
- 식품가공, 가정용품 등 전통 제조 기반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성장 모멘텀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

① 성장 산업 중심의 전략적 진출 강화

- 전자·반도체, 항공우주, 정밀공학 등 성장세가 두드러진 분야에 맞춤형 제품·서비스 포트폴리오 확대 필요

② 정부 정책 및 글로벌 수요 변화와의 연계

- 정부가 강조하는 수출 다변화, 산업 혁신, 무역 리스크 대응 기조에 발맞추어, 스마트 제조, 지속가능 기술, ESG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포지셔닝 필요

③ 산업 간 융합과 차별화 역량 확보

- 전통 제조업 둔화(-9.7%)를 고려할 때, 식품·소재·일반 제조 스타트업은 ICT·AI·친환경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
- 산업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,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의 공동 R&D·실증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

□ [25.09.09] 싱가포르, 6억5천만 달러 조성해 아시아 녹색 인프라 지원

- Fast-P 이니셔티브, 공공·민간·자선 자본 결합으로 기후금융 격차 해소 나서
 - 싱가포르 통화청(MAS)은 아시아의 지속가능 인프라 지원을 위해 Fast-P(아시아 전환 금융 파트너십)를 통해 약 6억5천만 싱가포르 달러) 확보
 - 재생에너지, 전기차, 저탄소 운송,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등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에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
 - 이번 조성은 글로벌 기관이 참여한 최초의 성과로, 싱가포르가 아시아 기후금융에서 책임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

□ [25.09.09] 조호르-싱가포르 경제특구(JS-SEZ),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 견인

- 조호르 GDP 6.4% 성장, 데이터센터 투자 붐이 성장 동력
 - DBS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, 조호르-싱가포르 경제특구(JS-SEZ)가 조호르 주의 2024년 경제 성장을 6.4%까지 끌어올리며 말레이시아(5.1%)와 싱가포르(4.4%)보다 빠른 성장을 기록
 - 싱가포르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조호르에 데이터센터와 서비스 부문 투자를 확대하면서 비거주용 건설과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
 - 조호르는 말레이시아 전체 투자에서 30%를 차지하며, 제13차 말레이시아 플랜의 핵심 성장 축으로 부상 중

□ [25.09.18] 퀀텀 투자사 QAI 벤처스, 아시아태평양 본부 싱가포르에 설립

- 싱가포르 기업청(Enterprise Singapore)과 손잡고 퀀텀·첨단 컴퓨팅 벤처 육성 추진
 - 글로벌 퀀텀 기술 및 첨단컴퓨팅 투자사 QAI 벤처스(QAI Ventures)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싱가포르에 설립
 - 싱가포르 기업청(EnterpriseSG)과 협력해 퀀텀AI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(5개월)과 벤처 빌딩 프로그램 등 두 가지 핵심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예정
 - 싱가포르의 국가 퀀텀 전략(National Quantum Strategy) 및 약 3억 달러 규모의 공공 투자와 맞물려, 지역 내 퀀텀 생태계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